

## 독일 정보통신박람회(CeBIT) 참가 및 통일 사례조사 결과

- 
- ◆ 기 간 : 2015. 3. 15(일) ~ 3. 21(토), 5박 7일
  - ◆ 방문국가 : 독일 (하노버, 잘츠기터, 베를린, 라이프찌히, 포츠담)
- 

2015. 4.

# 목 차

I. 독일 정보통신박람회(CeBIT) 출장 개요 .....	1
II. CeBIT 2015 참가 .....	2
1. CeBIT 2015 참관 .....	2
2. CeBIT 2015 참가기업 간담회 .....	5
III. 독일통일 사례 조사 .....	7
1. 前 작센주미디어청장 데틀레프 퀴 면담 .....	7
2.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 크리스토프 징겔른슈타인 편집장 면담 ..	11
3. 작센주미디어청 우베 그뤼닝 전문위원 면담 .....	14
4. 독일 방송기록 보관소(DRA) 방문 .....	19
5. 前 내무부 통일문제 담당관 면담 .....	21
IV. 출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24
<참고>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CeBIT 2015) 이슈분석 .....	25

# I

## 독일 정보통신박람회 (CeBIT) 등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CeBIT(Centrum fur Buroautomation, Informationstechnologie und Telekommunikation)에 참가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신 동향 파악
- 독일 통일 전후 방송통신이 통일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하여 향후 통일에 대비,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정책에 반영

### 2. 출장 국가 : 독일 (하노버, 잘츠기터, 베를린, 라이프찌히, 포츠담)

### 3. 출장 기간 : '15년 3월 15일(일) ~ 21일(토), 5박 7일

### 4. 출 장 자

소 속	성 명	직 급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국제협력팀장
	여환영	남북담당 사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영준	책임연구원

### 5. 주요 활동

- (CeBIT) 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동향파악 및 우리의 최신 동향 소개, 우리 참가기업 격려
- (통일관련) 독일 통일 전후 방송통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이 독일 통일과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방송개혁 프로세스의 성공 및 실패사례 수집 등

## II

# 독일 정보통신박람회 (CeBIT) 참가

## 1. CeBIT 2015 참관

### □ 개 요

- 일 시 : 2015. 3. 16(월) 10:00~18:00
- 장 소 : CeBIT 2015 박람회장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 (KCC), 김영준 책임 (KISA), 이유신 (통역)
  - 국 내 : 홍원표 사장, 탁정욱 상무 (삼성전자), 어성일 함부르크 무역관장, 서유미 대리 (KOTRA), 이선지 팀장 (IPR 포럼), 김주연 기자 (전자신문), 이재운 기자 (ZDNET Korea) 등
  - 국 외 : Marius Felzmann 수석부사장, Daiwei Chen-Katte (도이치메세), Heiko Gerbers (도이치텔레콤), Monika Friedrich (Microsoft), Genny Coronato (Software AG) 등

### < CeBIT 개요 >

- 행사명 :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CeBIT : Centrum fur Buroautomation, Informationstechnologie und Telekommunikation)
  - ※ 하노버산업박람회(매년 4월 개최) 부분 전시회로 개최되다 1986년부터 독립 박람회로 분리되어 매년 3월 독일의 하노버에서 개최
- 주관기관 : 독일 도이치메세(Deutsche Messe AG)
- 행사기간 : '15. 3. 16(월) ~ 3. 20(금)
- 행사장소 : 독일 하노버 박람회장(Hannover Exhibition Grounds)
- 전시회 특징
  - 행사규모 및 특징 : '14년에는 전 세계에서 21만명이 참관하였으며, 금년에는 70여 개 국가, 3,400여 개 업체 참가
  -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로 비즈니스 ICT 전문 박람회
    - ※ 소비가전 부문 최신 기술 경연장 성격의 CES나 IFA와는 달리 네트워크,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ICT전 분야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ICT 박람회

#### ☞ CeBIT 참관 동선

- 오전 : ① 전시장 입구 (NORD 1) → ② 16홀 한국관 (KOTRA,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 ③ 2홀 삼성전자
- 오후 : ① Hermese-Lounge (CeBIT 주최사 미팅) → ② 7홀 후지쯔 → ③ 4홀 도이치텔레콤, Salesforce, Microsoft, Software AG → ④ 2홀 IBM, Ehningen 부스 방문

#### □ 주요 내용

##### ○ (삼성전자)

- CES, MWC, InfoComm, IFA, CeBIT 등이 전 세계적인 주요 전시회인데 한번의 전시회 참여에 수십, 수백억 원이 소요되기에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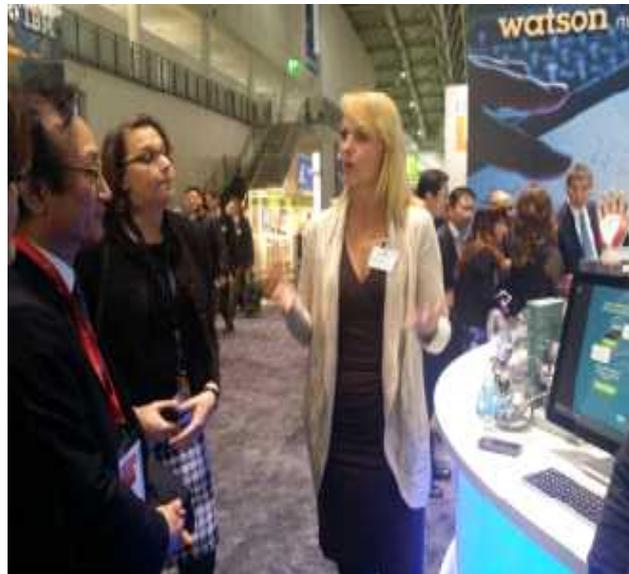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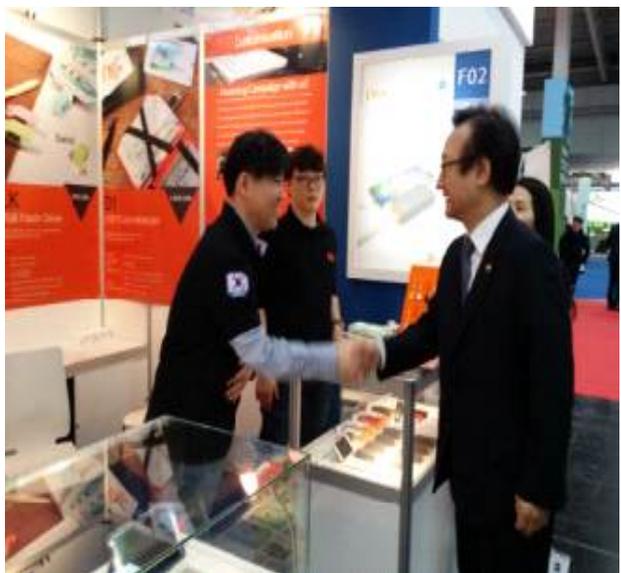
##### ○ (전자신문, ZDNET Korea)

- 통신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뛰어나며, 화웨이의 경우 EU와 기술 개발을 하는 등 유럽과도 협력이 많은데 한국기업들의 고민 필요
- CeBIT의 경우 B2B 전문 박람회인데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S6 등을 보기 위한 일반인이 많은 반면, IBM 부스는 실제 비즈니스를 위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차별화된 것을 느꼈음

##### ○ (도이치메세)

- '15년의 주제는 '디코노미 (D!conomy)'인데 디지털과 이코노미의 합성인 신조어이며, 이제는 산업이 데이터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금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춤
- CeBIT은 매년 동반국가를 선정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중국이 동반 국가이며, 화웨이, 알리바바 등의 세계적인 기업을 포함하여 620개 이상의 중국기업이 참여
- '16년에는 한국이 동반국가 (Partner Country)로 협력해주기를 희망

□ 면담 및 참관 사진



## 2. CeBIT 참가기업 간담회

### □ 개 요

- 일 시 : 2015. 3. 16(월) 19:00~21:00
- 장 소 : 초이스 한식당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 (KCC), 김영준 책임 (KISA), 이유신 (통역)
  - 국 내 : 어성일 함부르크무역관장, 김두영 유럽지역무역관장, 윤현철 부관장, 신환섭 이사, 윤강덕 팀장, 서유미 대리 (KOTRA) 등

### < 기업 간담회 요약 >

- 해외진출의 최일선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격려
-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방송통신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지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의 결실
- 앞으로 창의와 패기로 세계 방송통신 시장을 이끄는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 주요 내용

- 최근 CES, MWC, IFA 등의 특화된 ICT 박람회가 각광 받으면서 일반적인 ICT 박람회인 CeBIT은 10년 전에 비해 위상이 많이 떨어짐
  - 3월에 개최되는 CeBIT은 연초(1월)에 개최되는 CES나 하반기(9월)에 개최되는 IFA에 비해 기업이 신제품을 발표하기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며, 가전은 CES, 모바일은 MWC가 대표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게 되자, CeBIT도 '14년부터 B2B 전문 박람회로 컨셉을 바꿈

- o CeBIT은 2015년 주제를 '디코노미(D!conomy)'로 선정, 그동안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을 주제로 다루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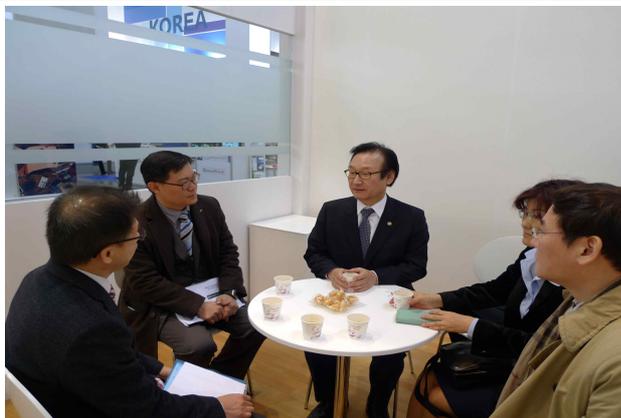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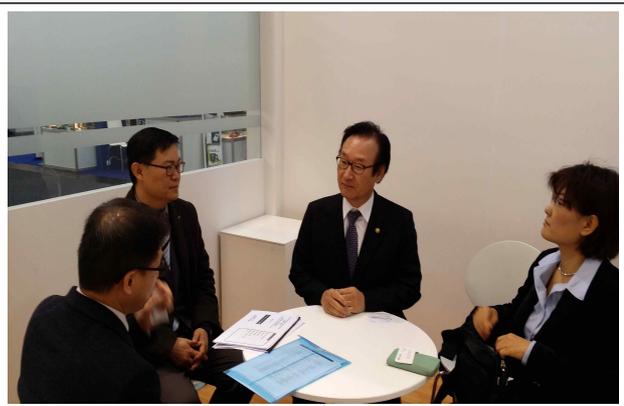
※ 디코노미(D!conomy) : 융합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

- 국내 삼성전자 외 총 64개의 중소기업들이 e러닝, 전자금융, 정보 보호, IoT 등 분야 전시

- KOTRA와 34개 업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5개 업체, 충북테크노파크와 6개 중소기업체를 연합해 한국 공동관 설치

- o '15년은 CeBIT(도이치메세) 측이 중국을 동반국가로 선정하여 독자적인 중국관 구성 및 중국 부총리가 행사 참여

#### □ 간담회 사진



### Ⅲ

## 독일통일 사례 조사

### 1. 前 작센주미디어청장 데틀레프 쿤 면담

#### □ 개 요

- 일 시 : 2015. 3. 18(수) 10:00~12:00
- 장 소 : Swisshotel Berlin 회의실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 (KCC), 김영준 책임 (KISA), 이유신, 이진 박사 (통역), 이봉기 통일관 (주독일대사관)
  - 면담자 : 데틀레프 쿤 (Detlef Kühn)

#### 〈 주요 면담 내용 〉

- 동독지역에 공영 및 민영방송을 다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 최대 실수
- 동서독 체제 간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과 절충 없이 서독체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임
- 지상파 주파수 배분시 기존의 서독에서 많이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으로 결정 권한이 서독에 있어 갈등이 있었음
- 신설 민영방송에 동독의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재정 및 인사 등 주요 보직의 실권은 서독인이 가짐
- 갑자기 통일이 되어 동독에 파견할 인력이 없었음. 한국도 이를 대비 해야함

#### □ 세부 면담내용

- (대표단) 통일 후 동독지역에 공영 및 민영방송을 다시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全獨 문제연구소에서 사전연구가 있었는지?

- (면담자) 그런 선행연구는 없었으며, 당시 연구소의 현안은 동독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지 미래의 전망은 아니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런 연구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이 최대의 실수였다 생각함

○ **(대표단)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방송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해줄 점은?**

- (면담자) 방송분야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점은, '90년 자유선거 이후 동독이 서독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서독 간 상이했던 체제에 대한 절충 없이 일방적인 수용으로 진행되었음

○ **(대표단) 7년 간 작센주 미디어정장을 하면서 허가한 민영방송 수는?**

- (면담자) '92년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전일방송 2개)이 허가됐으며, 그 이후 작센주를 벗어나는 범위의 방송이 8~9개 허가됨
- 지역방송(TV, 라디오)의 경우 중앙집권적이었던 기존의 방송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었기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었는데,
- 특히 동독에 분배된 지상파 라디오 주파수는 기존에 서독에서 많이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으로서, 결정 권한 역시 서독이 갖고 있어 문제가 있었음
- TV방송의 경우 기존 서독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함에 따라 허가 심사가 비교적 쉬웠음

○ **(대표단) 서독의 민영방송이 작센주에 모두 설립되었는지?**

- (면담자) SAT.1, RTL 등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며, 참고로, 동독의 설비(antennengemeinschaft)\*를 계속 활용하던 곳은 작센주밖에 없음

\* 안테나공동체((antennengemeinschaft) : 동독 말기에 서독 방송의 난시청지역이던 작센주(주도 드레스덴)에서는 80여 개의 공동안테나가 설치되었으며, 이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서독 방송이 각 가정에 유선으로 전송됨(한 안테나당 1,000~2,000 가구 수신)

※ 80년대 말 체제붕괴의 조짐으로 인한 동독주민의 대량 탈출을 최소화하고자 동독의 난시청 지역에 동독방송은 물론이고 서독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에서 묵인

○ (대표단) 동독에 민영방송을 신설하던 인력은 서독 출신이었는지?

- (면담자) '92년 처음 허가된 두 곳의 라디오 방송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표면적으로는 지역(작센주) 방송의 특성을 보이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였지만, 재정 및 인사 등 실권은 서독 출신이 갖고 있었음

○ (대표단) 방송전권인(放送全權人) 이었던 뮐펜즐에 대해 알고 있는지?

- (면담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의 뮐펜즐은 동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함

○ (대표단) '95년 뮐펜즐 방한 시 인터뷰에서 1만 4천 명의 동독 언론인 중 1만 명을 해고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당 정책수행이 힘들었음을 토로하였는데 뮐펜즐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 (면담자) 당시 작센 라디오의 사장이었고, 800여 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해고 할당량으로 인하여 정치와 관계없지만 필수 인력이 아닌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400여 명의 인력을 해고했었음
- 뮐펜즐과 동료들은 방송전문인이었지만 동독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로 평가됨
- 참고로, 당시 동독언론인의 검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가우크칭'에서 이미 유사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정직한 대답을 기대할 수 없었던 미봉책에 불과했기에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함
- 통일 이후 동 설문결과와 배치되는 구동독 출신 방송인들의 과거 전력이 밝혀지는 등 계속 논란거리가 됨
- 동독의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서독은 동독에 파견할 충분한 인력이 없었는데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대표단) 방송권역이 보통 3개의 州(예 :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를 하나로 묶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 (면담자) 특정인의 아이디어나 지시는 아니며, 각 정당이 이미 동독의 신연방주 의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당 간 협의에 따라 의결됨

○ (대표단) 혹시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었는지?

- (면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주민 수에 따라 내는 방송수신료로 운영되었으므로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음

□ 면담 사진



## 2.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 크리스토프 징겔른슈타인 편집장 면담

### □ 개 요

- 일 시 : 2015. 3. 18(수) 18:00~20:00
- 장 소 : Lutter und Wegner (현지식당)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KCC), 김영준 책임(KISA), 이유신, 이진 박사(통역)
  - 면담자 : 크리스토프 징겔른슈타인(Christoph Singelstein)

### < 주요 면담 내용 >

- 통일 대비 개혁운동은 70년대 ①평화문제 ②환경문제 ③행정소송 문제로 부터 출발하여 80년대에는 교육문제와 인권문제 위주로 이루어짐
- 5개 신연방주에 라디오 방송국을 먼저 설립하고 TV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목적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 방송전권인 선출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뮐펜츨이 임명됨
- 동독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인데 마치 서독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는 인상을 받음
- 서독은 동독인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치부. 하지만 실제 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음. 한국도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식의 차이일 것임
- 동독은 초기에 서독방송 시청을 제한하다가 추후 서독방송 시청 수신기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짐

### □ 세부 면담내용

#### ○ (대표단) 통일대비 초기 개혁 운동에 대한 활동은?

- (면담자) 70년대 중반이후에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① 평화 문제 (핵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 ② 환경문제 ③ 행정소송 문제 (동독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제도가 없었음)에 대해 이루어졌음
- (면담자) 80년대에는 교육문제 및 인권문제와 관련된 개혁운동이 이루어졌음

○ (대표단) 통일 이후 동독방송에서 서독방송으로의 방송 개혁과정은?

- (면담자) 먼저, 5개 신연방주에 라디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그 이후 두 번째로 TV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향후 변화될 체제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드는 것이었음

○ (대표단) 통일 후 방송전권인 뮐펜츨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 (면담자) 방송전권인 뮐펜츨은 통일 조약에 따라 '91년 말까지 중앙집권적인 동독의 방송국을 폐쇄하는 임무를 맡았었음
- 뮐펜츨 방송전권인은 권한을 위임받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데 위임 관련 투표 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 개혁과정을 평가하자면 동독이 스스로 자유선거를 쟁취한 것인데 마치 서독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는 인상을 받았음
- 뮐펜츨의 개혁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법으로 '91년 말까지 기존 동독의 방송을 정리하는 것이었기에 그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할 것임
- 해고 이후 재고용 문제는 바른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경제논리에 의하여 물건으로 인식되며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던 것은 아픈 기억으로 남음
- 또한, 서독에서는 동독 방송인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치부했는데, 당에서 활동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명목상 당에 등록된 사람도 있었음. 그런 인식은 올바르지 못했음

- 뮌헨출이 임기 초기에 동독 상황에 무지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도 곧 이러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적 관계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
- 비슷한 상황이 한국 통일 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대표단) 통일 직후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면담자)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부터 통일 전까지의 시기는 '행복했던 무정부주의'시대라 표현하며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시기였음
- 그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는 동독 언론인의 비판적인 성향으로 인해 갈등이 심하였음

○ (면담자) 북한에서 남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 **(대표단) 남한은 NTSC 방식, 북한은 PAL 방식이라 기술적으로는 시청이 불가능한데, 다른 경로를 통해 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도 함**
- (면담자) 동독도 초기에는 서독방송 시청을 제한했었는데, 추후 서독 방송 시청 수신기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져 방송시청에는 문제가 없었음

□ 면담 사진



### 3. 작센주미디어청 우베 그뤼닝 전문위원 면담

#### □ 개 요

- 일 시 : 2015. 3. 18(수) 15:00~17:30
- 장 소 : 작센주미디어청 사무실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KCC), 김영준 책임(KISA), 이유신, 이진 박사(통역)
  - 작센주 미디어청 : 우베 그뤼닝(Uwe Grüning) 박사

#### < 주요 면담 내용 >

- 서독은 연방주의, 동독은 중앙집권체제였기 때문에 방송통합 시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성공적이었음
- 동서독 방송통합 전권기구에 자문위원들 중 방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위원도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임명이었음
- 방송전권인이 동독 방송인에 대한 대량 해고는 연방법에 따라 주별로 인원들을 분산시켜야 했고, 필요 이상 인원이 많아 효율화도 필요했음
- 대량 해고는 방송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전 분야에서 이루어짐
- 독일 통일 후 지상파방송보다는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동독에서 서독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 방송이 동독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으며, 방송이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임

#### □ 세부 면담내용

- (대표단) 통일 뒤 종합적으로 방송통합이 잘 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 (면담자) 서독은 연방주의였고, 동독은 중앙집권체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관도 있었지만 방송분야에서 동서 간 통합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법적으로 '91년 말까지 동독의 시스템이 개혁 및 해체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 주의 법에 따라 해체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대표단) 동독의 방송인 입장에서 통합이 만족스러운지?**

- (면담자) 직업적 경력 이전에 동서독 방송인이 다르게 사회화 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방송이 동독인의 생각과 정신을 잘 반영하였는지는 계속 의문임

○ **(대표단) 방송전권인(뮐펜츨)과 관련된 조직 구성은?**

- (면담자) 당시 뮐펜츨이 맡았던 방송전권인 직위는 수많은 방송인을 해고했어야 하고 본인도 마지막 경력이어야 하는 힘든 자리였음을 감안하고 평가해야 함
-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 자문위원회는 3인 6조,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조에 1명씩은 비정치권 인사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음
- 뮐펜츨의 방송전권기구와 자문위원회의 관계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모두 전문가는 아니었으며, 행정기구와 감독·자문기구의 힘의 균형에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었음

○ **(대표단) 뮐펜츨의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어떤 기구에서 선출됐어야 하는지?**

- (면담자) 관련 위원회에서 선출됐어야 하는데 당시 기존 기구도 없었던 상황에서 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 **(대표단) '95년 뮐펜츨 방한 시 인터뷰에서 1만 4천명의 동독 언론인 중 1만명을 해고하였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 (면담자) 결론적으로 그런 대량 해고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먼저 당시 인원이 거주하였던 곳은 베를린인데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주별로

분산되었어야 하며, 방송을 비롯한 동독 전분야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 효율화 시켰어야 했음

○ (대표단) 동독 방송인에 대한 설문조사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은?

- (면담자) 설문조사의 동기는 구 동독의 슈타지에 협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인사들을 국영기관에서 배제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취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음
- 가우크청과의 중복문제는 현실적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소요시간이 길어서 가우크청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음

○ (대표단) 동독 방송인의 해고와 주요 보직 박탈이 설문조사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경로의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 (면담자) 설문조사는 참고사항이었으며, 동독 시절 인사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였음
- 당시 방송 외에 동독의 수백만 명이 해고 당하는 상황이어서 방송만 특별히 조심스러운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았음
- 설문조사는 당시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동독방송에서의 임면에 관한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었음
- 그리고, 결론적으로 1만 4천 명 전원이 해고됐고 시기 상 차이만 있었음

○ (대표단) 마지막에 해고된 4천 명의 방송인은 신설된 지역 민영방송으로 자동승계 되었는지?

- (면담자)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방송경험이 있는 점은 유리하였을 것이며, 다만, 신설 방송국으로의 취업은 서독인과의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대표단) 당시 자문위원회의 동서독 방송인 간 비율은?

- (면담자) 18명 중 1명 (귄터가우스)만 서독 출신이었으며, 각 주 (5개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 3명씩 선출됨

○ (대표단) 민영방송 설립에 관여하였는지?

- (면담자) 당시 작센주의 민영방송 설립 시 미디어청, 행정자문위원회, 미디어자문위원회의 3곳에서 관여하였음
- RTL, SAT-1, FOX 등이 허가되었으며, 지역 민영방송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음
- 통일 이후 작센지방에서는 지상파보다 안테나공동체 (antennengemeinscha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재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성했음

○ (대표단) 지역 민영방송국의 자본 구성은?

- (면담자) 방송국의 경우는 모두 비슷한데 슈프링거를 비롯한 서독 언론사들의 자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특정 자본이 50%를 넘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있었음

○ (대표단) 해고된 동독 방송인들이 민영방송에 많이 채용되었는지?

- (면담자) 민영과 공영 모두 이미 방송활동 하던 인력을 투입하였고 신규 채용의 경우 기존 해고되었던 방송인이 아닌 청년층 채용

○ (대표단) 동독인의 입장에서 방송과 통신의 교류가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가?

- (면담자) 측량할 수 없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러한 교류가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임
- 본인을 비롯한 많은 동독인이 서독의 TV를 통하여 검열되지 않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동독의 시위물결이 전파되는 것도 서독의 TV중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임

- (대표단) 동독에서 서독 TV방송 시청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였는지?
  - (면담자) '61년 베를린장벽 건설당시에는 통제가 엄격하였으나, 점차 완화되고 묵인되었음
- (대표단) 서독 TV방송 시청 후 서독에 대한 동경 등 소감은?
  - (면담자) 각자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의 경우 처음에는 동독의 체제가 일시적인 체제라 생각하였으나, 30년이 넘어가면서 의구심이 생겼었음. 하지만, 본인의 고향은 동독이 아니라 독일이라 생각하였음
- (대표단) 만약 남북한이 동서독처럼 서로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의 체제유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 (면담자) 제3자가 보기에다 당시 동독보다 현재 북한이 훨씬 폐쇄적이고 남북한 간 방송방식 등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나 굳이 비교하자면 방송보다 인터넷의 영향이 크게 될 것으로 보임
- (대표단) 북한측이 평소 남한과 방송 교류를 한다면 향후 통일시 동서독처럼 빠른 적응이 되지 않을까?
  - (면담자) 독일만의 상황이라 부족한 식견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당시 동독인의 경우도 망명 정도를 기대했지 통일은 예상하지 못했음

□ 면담 사진



## 4. 독일 방송기록 보관소(DRA) 방문

### □ 개 요

- 일 시 : 2015. 3. 20(금) 10:30~11:50
- 장 소 : 독일 방송기록 보관소 (DRA, 포츠담)

※ DRA (Deutsches Rundfunkarchiv Archives)

###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 (KCC),  
김영준 책임 (KISA), 이유신, 이진 박사 (통역)
- 면담자 : Angelika Hörth (DRA)

### □ 주요 면담내용

#### ○ (대표단) DRA 소개 요청

- (DRA) '52년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설립되었고, '92년 포츠담에  
ARD 산하의 비영리 재단으로 추가 설립
- 음성, 영상, 문서, 사진 등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콘서트 초연,  
동독인의 일상 등 중요한 음성(Audio)자료 들이 있음
  - ※ 희귀 소장자료 : ① 초기 사운드레코딩부터 현대의 역사적인 레코딩 기록 ② 음향  
저장매체 : 셀락과 비닐 레코드, 에디슨 실린더, 피아노 롤 등 ③ 1945년 이전  
ARD와 German broadcasting 관련 출판물 등
- 소장된 자료는 음성자료가 가장 많으나 대역되는 빈도는 영상자료가  
60%, 음성자료가 20% 정도 차지

- DRA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기관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2020년까지 영상자료는 100%, 음성자료는 60% 디지털화 및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화 예정

○ (대표단) 동독 시절의 영화는 어디서 보관하는가?

- 영화자료는 본 보관소 지하의 특수시설에 영하 4도로 보관중

□ 면담 및 견학사진



## 5. 전(前) 내무부 통일문제 담당관 면담

### □ 개 요

- 일 시 : 2015. 3. 19(목) 12:00~14:00
- 장 소 : Machiavelli am Roseneck (현지식당)
- 참석자
  - 대표단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팀장, 여환영 사무관 (KCC), 김영준 책임 (KISA), 이유신, 이진 박사(통역), 이봉기 통일관 (주독일대사관)
  - 면담자 : 에버하르트 쿠어트 (Eberhard Kuhrt)

### < 주요 면담 내용 >

- 서독은 방송제작 시 동독의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있음을 감안하고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 동독에서 50년대에는 서독방송 시청을 문제삼았으나 70년대부터는 서독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고위 관료자들도 인용함
- 독일의 경우도 방송교류를 끊임없이 추진하였었음. 한국은 전쟁이라는 상처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더 방송교류에 노력해야 할 것임

### □ 세부 면담내용

#### ○ (대표단) 통일문제 담당관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 (면담자) 기민당(CDU)에 소속되어 있으나 항상 기민당을 뽑지는 않았으며, '72년 선거에는 정채되어 있던 동서독 관계에 돌파구를 기대하며 사민당(SPD) 빌리브란트 총리를 후원했으나 실망했었음

○ (대표단) 어떠한 면에서 실망하였는지?

- (면담자) 먼저 기대했던 것은 사민당의 통일 정책처럼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동독 정권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서 간 상호접근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했으나 동독 헌법 개정은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졌음
- 동독경제가 악화되고 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통일측면에서는 좋은 점이었는데, '82~'83년 콜 총리의 새로운 정책수립과 맞물려 동독이 서독경제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침

○ (대표단) 남북 간 방송통신교류를 고민하고 있는데 동서독 간 방송통신교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조언할 점은?

- (면담자) 전화를 예로 들면 동독에서 유선전화망 보급률은 10~20%로 열악했으며, 전화를 보유한 사람도 대부분 당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인데다 교환을 통하기 때문에 동서독 간 자유로운 교류는 힘들었음
- 라디오의 경우 동독 어디나 서독방송의 청취가 가능했으나 TV는 드레스덴이나 폴란드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청이 어려웠음
- 그 가운데 긍정적인 면은 서독의 방송들이 동독의 시청자 및 청취자도 염두에 두고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 '50년대는 서독방송 시청을 막는 상황이었지만 '70년대는 상황이 바뀌어서 동독 고위관료까지 서독 방송시청으로만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여 언급하기도 했음

○ (대표단) 서독방송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 (면담자) 서독방송 시청 및 청취가 위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지만 '60년대에는 시청 및 청취를 금지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음

- (면담자) 현재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나 TV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할 수 있는지?
- (대표단) 남한은 NTSC 방식, 북한은 PAL 방식이라 기술적으로는 시청이 불가능한데, 다른 경로를 통해 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도 하며, 드라마, 코미디 등 오락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음
-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하던 시점에는 남북 간 방송사가 다큐멘터리, 스포츠 등을 공동제작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중단되었었고, 올해 부터 다시 협업하는 기획을 만들어보려고 함
- 북한은 현재 폐쇄적이라 동독의 경우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면담자) 독일의 경우는 교류에 대한 노력이 끊이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는 전쟁의 상처 등이 있어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 이해함

□ 면담 사진



## IV

# 출장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 1. 주요성과

- CES, MWC에 이어 이번 CeBIT행사에서도 600여 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해외 B2B 솔루션 업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했음. 이를 감안하여 우리 방송통신 기업들의 대응전략 및 육성 필요
- 국내 지역 유관기관들과 중소기업들 간 공조체제의 활약이 돋보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방송통신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독일 방송통합 과정에서의 정책실패를 참고삼아 향후 통일에 대비한 사전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남북방송통신 교류정책에 반영
- 독일 통일 이후 방송통신 개혁의 중심인물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혁 프로세스의 성공과 실패사례 수집 및 인터뷰 육성 녹음, 영상 등의 보존 가치 있는 자료 생성
- 독일 정부, 방송통신 관련기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방송통신 최신 동향 파악

### 2. 향후계획

- 남북 방송통신교류사업 발굴 및 남북 관련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7월에 개최 예정인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에 관계자 초청 예정

[참고]

#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CeBIT 2015) 이슈분석

## 1 개요

□ 독일 도이치메세(Deutsche Messe AG) 주관, 매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컴퓨터, 통신제품 중심 전시회

### 총 평

- ◇ CeBIT은 시기적으로 CES(1월), IFA(9월)보다 좋지 않으며, 품목면에서도 CES(가전), MWC(모바일)와 차별화가 힘들어 '14년부터 **B2B 전문박람회**로 전환
- ◇ CeBIT(도이치메세) 측은 매년 동반국가(Partner Country)를 선정하는데 '16년 **동반국가로 한국을 선정**하고 수락여부 및 협력 제안
  - ※ '15년에는 중국이 동반국가로 선정되어 부총리 방문 및 600여 개 이상의 중국업체 참여
- ◇ 현재 CeBIT의 위상약화로 국내 참여 대기업은 삼성밖에 없으나 동반국가로 협력하게 될 경우 '16년에는 다수의 한국 대·중소기업 참여 예상

	주요 품목	IT, 통신제품, 디지털미디어, 가전
	개최 장소	하노버(독일)
	최초 개관	1970년
	참석 규모	('15) 20만 1천여명
	행사 주최	도이치메세 (Deutsche Messe AG)

[2015년 규모]			
참여사	스타트업 참여사	관람객	참가자 당 투자금
			

CeBIT 히스토리
✓ 1970년 산업 전시회인 하노버 쇼의 부대 행사로 최초 시작
✓ 1986년 이후 IT 비중 증가에 따라 하노버 쇼와 분리된 별도 행사로 개최, 국제 행사로 규모 확대
CeBIT 2015 주요 내용
✓ (슬로건) <b>D! conomy</b> (디지털 이코노미)
✓ (주요 연사) 메르켈 독일 총리, 마카이 중국 부총리,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레이젠 샤오미 창업자 등

CeBIT 2015 기조연설 주제	
3월 16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 사회의 생존 전략</li> <li>✓ ICT와 산업 구조 재편</li> </ul>
3월 17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분석과 거버넌스</li> <li>✓ 디지털 시대의 기업 재구성</li> </ul>
3월 18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안</li> <li>✓ NATO의 사이버보안 전략</li> </ul>
3월 19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인공지능</li> </ul>
3월 20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품질관리</li> </ul>

## 2 CeBIT 2015 주요 이슈

### 1 B2B 솔루션들의 격전지

#### □ B2B환경에서의 클라우드, IoT, 모바일 솔루션 부문 다수 출품

- IBM, MS에서 빅데이터 분석 도구, 오피스 S/W 등 B2B 솔루션 공개
  - (IBM) '14년부터 중국에서 '그린 호라이즌(Green Horizon)'의 일환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72시간 뒤 공기 질 및 대기오염 예측 결과 시연
  - (MS) 맥(MAC) 등 다수의 타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오피스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발표
- 중국은 600여 개 자국업체가 참여하는 중국관을 설치, IoT·스마트홈·모바일 간편결제·클라우드·4G LTE 기술 등 시연
  - (샤오미) 모바일 플랫폼 Mi에 냉장고, 공기청정시스템 등 가전 기기 연결 제어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 IoT·스마트홈 솔루션 'Mi Home' 시연
  -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 '스마일 투 페이'를 이용해 20유로에 구매한 하노버 산업박람회 기념 우표를 현장에 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 시연
  - (화웨이) 통신업계를 대상으로 CloudEngine 12800 Data Center Switches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품군 공개

IBM, 그린 호라이즌 프로젝트 시연	알리바바, 얼굴결제 시스템 스마일 투 페이 시연	화웨이, 유무선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공개	샤오미, 스마트홈 솔루션 Mi Home 시연
			

삼성전자, B2B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부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



-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서 B2B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를 공개하고 업무용 BYOD 보안 솔루션, 유통·의료·교통 등 산업용 IoT 솔루션 등 다수 출품
  - 그룹웨어 등 업무기능을 지원하는 보안솔루션 '녹스(NOX)'와 블랙베리 '시큐스마트'가 탑재된 기업용 태블릿 '시큐태블릿' 공개
  - IoT 환경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PC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안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장면 시연
  -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업용 솔루션 '삼성 클라우드 프린트' 시연
  - '갤럭시S6'와 폭스바겐 차량 '파사트'를 연결,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차에서도 실행하는 커넥티드 카 솔루션 시연
- 국내 삼성전자 외 총 64개의 중소기업들이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하에 e러닝, 전자금융, 정보보호, IoT 등 분야에서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34개 업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5개 업체, 충북테크노파크와 6개 중소기업체를 연합해 한국 공동관 설치

### 시 사 점

- ◇ CES, MWC에 이어 이번 CeBIT행사에서도 600여 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해외 B2B 솔루션 업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확인
- ◇ 국내 지역 유관기관들과 중소기업들 간 공조체계의 활약이 돋보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2 국가 간 제휴 및 연합 확대

### □ 유럽 연합 - 중국 IT 제휴 강화

- CeBIT 2015 동반국가로 중국 선정, 셴젠 등 산업지역 중심 600여 업체 참가, 중-유럽 간 IoT 공통 플랫폼 활용 제휴
  -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카이 중국 부총리 간 회동 등 유럽과 중국정부 협력 강화



메르켈 총리, 마카이 부총리, 마윈 회장 회동



SAP - 화웨이 IoT 플랫폼 기술 협약

### □ IT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의 영향력 확대 관측

-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IT 제조기업 약진 속 삼성전자 B2B 투자 발표 등 아시아 소재 기업의 유럽 내 영향력 강화

#### 시 사 점

- ◇ 유럽연합 - 중국 간 동맹은 실리콘 벨리 기반 미국 IT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
  - 獨 - 中 정부 간 제휴로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 전망, 인더스트리 4.0 기반 제조업 부가가치 향상 전망
- ◇ IT 분야에서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영향력 지속 확대 전망
  - 셴젠 등 제조 IT 특구를 보유한 중국, 모바일·스마트TV 강국인 한국 등 IT 분야 경쟁력이 높은 아시아의 독주가 심화될 전망

### 3 국가 간 정보 감시 등 사안 주요 의제 채택

#### □ 국가 간 안보, IoT 보안 등 정보보호 관련 다각도 의제 제시

-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국가 기관의 정보 장악 시도 경고 및 인터넷 자유에 대한 컨퍼런스 진행

※ 에드워드 스노든은 美 국가안보국(NSA)에서 보안 기술자로 근무, NSA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인 PRISM을 폭로 후 美 정부의 통제를 피해 러시아에 단기 망명 상태임



에드워드 스노든 CeBIT 2015 라이브 인터뷰 (출처:로이터)

- (정보보안) '사회 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안', '통합적 관점의 사이버 보안' 등 정보보안 관련 다양한 시각의 컨퍼런스 및 전시회 진행

#### 시사점

- ◇ 국가 간 안보 문제를 테마로 선정, 기술 전시회를 넘어 ICT 아젠다를 제시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주목
  - 에드워드 스노든 인터뷰는 美 중심의 ICT 산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獨 중심 유럽의 전략이란 분석
- ◇ 정보보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타 전시회와 차별화 추구, IoT 시대의 정보보안의 존재 이유와 적용 범위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